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함으로써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10·4 선언'에서는 6·15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정책,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남측이 준비한 의제를 거의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문은 6·15공동선언 채택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장애요소를 제거하면서 긴장 완화와 냉전 종식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핵문제에 관한 연내 불능화를 합의한 직후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발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합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부시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달성하기 위한 정검다리로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할 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려 한다. 북한은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관련 합의



불자 세상보기

고 유 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선언' 보다 중요한 건 '실천'

를 도출하여 당사자 해결의지를 확인하고, 남북한과 미국을 포함하는 3자 정상회담,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하려는 큰 그림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여줬다.

한국전쟁 종료선언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부시행정부 임기 내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 개혁, 개방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은 평화와 번영을 연결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지는 취지를 살려 민족공동번영과 관련한 많은 경제협력

합의를 도출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 합의는 되풀이 돼 온 서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결과 관련해서는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2·13합의를 연내 이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6자회담의 주요 의제로 보고 언급을 짧게 한 것 같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관한 의지를 종전선언에 관한 적극성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합의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울을 정검다리로 해서 워싱턴으로 가려는 북한

의 확고한 의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실험 이후의 국면을 전환해 한국전쟁을 종료하고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와 경제제재를 하겠다는 확고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방향을 설정한 1차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실질적 접근을 위한 실용적 사안이 많은 것 같다.

또 불신해소 차원에서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위한 남북 국회 논의, 임가공 형태에서 개발지원으로의 경험 성격 변화 및 남북간 교류협력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언은 남측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행될 수 있는 것으로, 남측이 모두 실의를 볼 수 있는 의제가 많다. 대북지원과 관련한 '퍼주기 문제'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높아질 것이다.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남북당국과 정치세력들의 '주관적 의도'가 무엇이든 객관적 현실은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해결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관리가 이뤄져 긴장이 완화되면 대외신인도가 높아질 것이다.

불자의 눈

두 번째 화살도 맞을 것인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정병 스님이 홀로 동국대 교정에 섰다. 학교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석가모니 부처님 앞이다. 이유는 동국대에서 촉발된 신정아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불교계와 동국대의 위상이 추락할 대로 추락하는 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다.

시나브로 졸업과 입학시즌이 다가오는데, 동국대 졸업생들이 세상에 나가 이력서라도 내려면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원서를 들고 몰려오려면 보다 건강하게 거듭난 학교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책임론은 무성한데 책임을 질 사람은 없고 성명서와 비판은 날카롭지만 수용할 주체의 자세는 두루뭉스리 그 자체다. 때문에 인과의 법칙도 상실된 느낌이라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

언론은 언론대로 동국대는 물론 불교계를 온갖 의혹의 온상인 것처럼 안개 같은 보도를 연발하고 있다. 불교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권력지향적인 측근이 지나치게 드러난 종단 지도자들의 성향과 포교에 대한 정책부재, 종립대학에 대한 관리의 허점 등이 총체적으로 비판대에 올려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지난 일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미증유의 화살을 맞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화살의 비유'가 잘 말해주고 있다. 다음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 정병 스님처럼 개인적인 참회도 좋고 각 종주기관의 쇠신 의지도 좋고 봉암사에서 열린 대규모 참회기도도 좋다. 다만, 그러한 행동이 반드시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로 접목되어야 한다. 방일하지 말라. 지금불교계 내부의 '부도덕'과 '비불교적 사고'에서 시위가 당겨진 두 번째 화살이 우리들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

미안마에 '민주화 꽃'을

미안마의 스님들이 군부의 무자비한 군화발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 최근 몇 주째 계속 되던 미안마의 민주화 요구 시위는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스님들과 군중에 대한 탄압의 교배는 늦춰지지 않았다.

이미 100명이상이 사망하고 2000명 이상이 구금 납치됐다고 한다. 미안마의 내부 사정은 의신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참혹할 것이다. 우리도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겪었던 일이 다. 민주화는 민주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탄압과 폭력에 맞선 싸움의 뒷길에서 만나는 것인가? 한국불교계가 미안마의 스님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나누는 형제'임을 천명하면서 그들의 용기를 지지하고 나섰다.

중앙신도회와 여러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미안마 군부의 탄압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미안마의 스님들을 위해 지원금을 보내기로 하고 지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불교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매우 아름답다. 이미 독재의 긴 터널을 경험한 한국불교는 사실, 197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서 그치지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비판도 받았었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현대사에 있어 민주화 운동의 불교적 논리를 구축하고 민중불교의 깃발을 들었던 귀중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제 한국불교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안마의 민주화를 꽃피우는 거름 역할을 할 때인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30. 공직사회의 종교오염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공직자 종교 발언 삼가고, 공공행사 종교색깔 없애야

교인들 중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종교 신자임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공개적인 종교 표현을 상식에 어긋나는 일로 간주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노골적인 종교발언이 잦아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

개인의 취향이라면 할 말이 없으나 그가 공직자 신분이라면 차원이 전혀 달라진다. 그런 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일시 위임받은 '세속적 권력'과 자신들이 믿는 '종교적 권위'를 동시에 이용하려는 위험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농촌공사의 한 지사장이 자신의 명함 앞면에 '지사장 ○○○', 뒷면에는 '○○교회, 장로 ○○○'라고 인쇄, 보기에 따라서는 장로임을 먼저 내세우는 명함으로 느껴져 타종교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게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었다. 공기업인 한국농촌공사의 윤리강령 제10조 2항에 "입직원은 학연, 혈연, 종교, 직급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시키자 잘못을 시인하고 명함을 폐기함으로써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에 별 문제의식 없이 종교색깔을 띠는 부적절한 행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단적으로



임내규 전 특허청장

말해주는 사례이다.

수년 전 필자가 나온 학교의 동창회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동문들에게 보낸 공식 인사말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으며 은총을 체험하며 살

아왔습니다"라고 썼던 적이 있다.

순수한 친목과 우정의 자리가 되어야 할 동창회마저 타종교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필자가 일부러 "공인인 회장의 처신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며 정중히 답신을 보냈고, 그 후 종교적 색채는 많이 없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이 일상화 되면 큰 문제가 되는 법이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이 유이다.

2001년 6월 4일 당시 임내규 특허청장은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월례 조희석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으며... 본인은 새벽에 미사에 다녀왔다"며 특정종교를 믿으라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켜, 조계종 사회부장 스님을 만나 공식 사과까지 한 바 있다. 또 2004년에는 당시 전태홍 목포시장이 11월 26일 목포 KBS홀에서 열린 '2004 목포북음화 대성회'에 출석해 "목포시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발돋움하도록 기원해 달라"고 말했으며, 당시 조규선 서산시장도 7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기관장 모임에서 "서산의 복음화를 위해 기관장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노골적으로 특정종교를 찬양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한축구협회 이영무 기술위원장도 '못 말리는' 사람들 중 하나다. 그는 올해 6월 11일 FIFA 청소년(20세 이하) 대표팀의 출정식에서 "정몽준 회장과 닮은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해 한국 축구가 이처럼 발전하게 해주신 것에(하나님께) 감사한다.

부상한 프리미어리가 4인방에게도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것"이라며 기도를 했다. 안산시 합렐루아파트의 단장으로서라면 모를까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기술위원장이란 공인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행위다. 그는 2006독일월드컵을 앞두고 실시했던 미주 전지훈련 동안에도 휴식일에 맞춰 선수들을 데

리고 교회에 나가 간증을 하는 등 타종교 선수들의 사기를 고려치 않는 부적절한 종교활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고 한다.

공공행사에서 종교분위기 연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입학식, 졸업식, 투표장 등을 특정종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현수막 등으로 특정종교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문제다.

2005년 4월 18일 세종홀에서 가진 4.19혁명 45주년 국가조찬기도회가 보훈처와 문화관광부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행사임에도 공식성이 배제된 채 개신교 기도회장으로 변질되어 당황했던 불자들의 항의성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 4.19 관련 3개 단체가 주최한 것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기독교계(대회장 한기홍의 이만신 목사, 준비위원장 김홍대 목사가 4.19라는 엄숙한 이름을 빌어 교회 때 두르고 안내하고 기도하는 등 국가예찬을 사용하여 선교회도회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주최 측은 오히려 문제 삼는 불교계를 비난하고 심지어 폭언과 욕설까지 퍼부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기독교 행사로 하고 싶으면 기독교인들끼리 기독교 관련 장소에서 기독교 재원으로 하라. 일반인들까지 초청하여 공공시설에서 공공기관의 후원으로 치르는 공공행사를 종교로 덧붙이고도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는 그 무지가 우리 사회를 파란하게 한다.

특정종교 신자임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항상 종교를 앞세우는 공직자들을 그저 '못 말리는 사람'으로 넘겨버릴 수는 없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종교오염이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공식 석상에서 공인의 위치를 망각한 종교적 발언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지 않나 판단된다.



삼각산 보광사에서는 수륙천도대제 49일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중 큰 스님들의 초청법회를 하오니, 모든 불자들이 무로 동참하셔서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07년 10월 12일(음 9월 2일) 금요일
◆ 수륙재 6재 수월 큰스님

일 시 : 2007년 10월 13일(음 9월 3일) 토요일
◆ 신중기도 수월 큰스님

일 시 : 2007년 10월 19일(음 9월 9일) 금요일
◆ 수륙재 회향 도형 큰스님

회주 대현
주지 성비

기획 황석 재무 황학
사회 황엽 호법 도전
도감 현웅 원주 용주

재단법인 선학원 삼각산 보광사
서울 강북구 우이동 76-19 전화 02)993-3808 / 팩스 02)993-6981